경북 봉화의 마지작 사림처사士林處士

동애東厓 권헌조權憲祖옹 별세

5일장에 500여 조객 모여

▲ 출상 전야에 빈소에서 문생 권도현이 고결전을 올리며 제문을 봉독하고 있다

경북 봉화의 순정純正한 산림처사山林處士이자 우리 시대 이 나라의 마지막 사림인士林人 동애東厓 권헌조權憲祖(검교공파 사복재계 시조후 34세)옹이 2010년 12월 13일, 음력 11월 8일 저녁 술시戌時에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선돌 송석헌松石軒 고택에서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국가문화재인 송석헌을 지난 8월부터 해체보수 공사중이라 노환중인 옹이 10리쯤 떨어진 봉화읍내 혜성병원에 입원요양중이다가 월여 전부터 환후가 심상치 않아 퇴원을 서둘러 본가로 돌아와 고종考終하였고, 상례는 해체하여 비계와 천막으로 가린 고택에서 어찌 주선할 마련이 없어 다시 읍내로 운구하여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다. 장기를 5일로 정했으나 초종일이 저녁나절이고 발인 당일은 이른 아침 출상이라 호상소의 실제 문상일은 3일, 시절이 달라 우편이나 전인부고專人訃告를 못했는데도 소문으로 원근에서 찾아든 문상인과 회장자會葬者가 500여인이었다. 12월 17일 아침 9시에 병원 장례식장에서 견전례遣奠禮를 행하고 발인하여 영구차로 선돌 송석헌 본가로 이동해서는 대문안 내정에서 영구를 지상여紙喪輿로 이가移駕하여 사당(가묘家廟)에 고유하고 해로 露歌(상엿소리)와 함께 다시 출상하여, 봉화읍에서 영구차로 온 길을 되돌아 선돌고개 너머에 있는 같은 석평리 선영하에 안장되었다. 오전 11시, 오시초午時初에 하관이 이루어졌고, 하관 직후부터 비치기 시작한 서설瑞雪이 반혼返魂과 더불어 상당한 양으로 내렸다.

옹이 그 관을 덮고 둔석 솟에 든 명정銘旌은 ‘ 동애처사東厓處士 ’라 호칭되어 있었다. 초명이 영부寧富인 옹은 동애 외에 일신당日新堂과 경독재耕讀齋라는 아호를 더 가지고 생평을 마쳤다. 1930년 음력 정월 20일생인 옹은 동암東菴 권이번權以繁(1676 ~ 1763)공의 9대종손이다. 동암공은 이곳에서 후학을 기른 ‘ 동암서당東菴書堂 ’을 남겼고, 송석헌 고택은 동암이 그 아들 권명신權命申(1706 ~ 1778)에게 지어준 살림집이며, 지은 이래 250여년이 집에서는 동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문장학문과 효행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역대로 이 집 대문 밖으로 지어 나간 금석장지문金石狀誌文은 그 수를 헤아릴 길이 없다. 송석헌은 또한 동애의 조부의 아호이기도 한데 이 고택의 당호로 고착되었다. 조부 송석헌은 이 당호 외에 회산晦山 · 상재尙齋 · 석남石南 · 석사石史 등의 아호를 가지고 문명을 날렸는데 30대에 퇴계의 주역周易 풀이서 ‘ 계몽전의啓蒙傳疑 ’를 중간할 때 결락된 앞부분을 암기 복원한 일로 사림을 탄복시킨 인물이었다. 그 선고先考 희암希菴 권정선權正善공은 1992년 87세로 별세했는데 소시에 읍내에 나갔다가 일경日警에게 상투를 잘린 일을 제외하고 몸을 마치도록 삭발하지 않았다. 평생 한학에 침잠한 8년 동안 봉화향교의 전교典校를 지내고 10년 동안 지역 유림을 대표하였으며 원근 원묘院廟의 망기望記를 받은 것이 90장이었다.

이러한 집안에서 종손으로 태어난 옹은 이미 개화기도 반세기나 지난 시대 일제하에서 신학문의 학교에는 발을 들여보지 못했다. 어릴 때 읍내의 일본인 교장이 집으로 찾아와 그 조부 송석헌에게 필담筆談으로 ‘ 영손令孫을 학교에 보내달라 ’는 간청을 했지만 조부는 허락지 않았다. 말을 배울 나이부터 조부에게서 가학家學을 익혔는데 15세에 일제가 망하고 세변世變이 격동함에 따라 그 글마저 읽기를 계속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밑에 엎드려 생일에 허리를 펼 겨를이 없게 되었다. 16세 미성년부터 독서가 중단되어 기어코 학문에 깊어질 기회를 놓친 것을 옹은 평생의 한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옹의 겸사이고, 어느 겨를에 무엇을 독송하든 수불석권手不釋卷으로 시종하니 이는 그 천성의 습관이고 본능일 따름이었다. 신학을 못하게 하는 집안의 금기는 동애의 아들 대에까지 미쳤다. 그 장남 권동재權東載 또한 조부의 엄명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날 그 고모들이 아버지 몰래 조카를 하교에 갖다 넣어 어린 동재는 ‘ 도둑학교 ’를 1년 3개월 다녀 남이 6년 걸리는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중고교를 거쳐서는 명문 고려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필細筆에 특히 달인으로 알려진 동애옹은 소시부터 여러 서원이나 시사詩社 등의 백일장白日場에 나가 방에 오르고 서너 차례 차상次上에도 오르내렸으나 장원은 차례가 오지 않았다. 더러 시관試官의 실감失鑑에 대한 뒷말이 돌았으나, 이에 대해 일체의 의사를 발설치 말라는 게 선고의 엄명이었다. 47세 중장년에는 6년여 동안 위궤양으로 와병하기도 하면서 유림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는 달리 소업이 없었다.

어버이에 성효誠孝함은 이 집의 세습된 범상凡常인데 세태가 상해桑海로 변하면서 이러한 일이 ‘ 진기한 ’ 화제로 세상에 회자되었다. 필자는 11년 전, 1999년초에 그 대부인상을 당해 점석복상 席服喪 중이던 옹을 찾아가 나름으로 심층취재를 하여 본보 1999년 3월 1일자 제3호에 보도한 바가 있다. 그 기사에서 옹의 거상居喪 부분을 초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19일, 음력으로는 무인년戊寅年 12월 2일 술시戌時에 동애 권헌조씨는 그 대부인 유인孺人 봉성금씨鳳城琴氏의 상을 당했다. 봉성금씨는 20년의 숙환 끝에 향년 94세로 별세하였고 1월 23일에 5일장으로 송석헌 뒷산의 7년 전에 선세한 부군의 건위乾位에 예를 갖추어 부장 葬되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으나 이 집안과 동애에게는 그런 말이 가당한 적이 없다. 부친의 시질侍疾이 6년이고 모친의 그것이 20년인데 물론 변소 출입이 안되어 대소변을 받아냈으며, 양친 시질 기간을 합하면 26년이니 4반세기의 세월이 된다. 게다가 안일을 도맡던 동애의 부인 풍산유씨豊山柳氏마저 15년 전에 높은 뜰 밑으로 낙상落傷한 것이 척추를 다치는 바 되어 서울의 큰 병원 등에 입원하여 백방으로 치료하였으나 기거가 불편한 몸이 되어 있다.

“ 저녁 때 술시戌時에 임종하시니 5일장이라고 해야 4일장 마침이지. 혼자손에 두서를 못 차려 부고를 보내야 할 곳에 모두 빠트리고 예제와 인사가 영 불비라. 서울 아이들 집에 가 있던 내자內子가 떠메어 실려 왔지만 기거를 못하니 우졸虞卒(세번의 우제와 그에 이은 졸곡제)하고 부제 祭에 여럿의 부축을 받아 명색이 주부主婦라고 겨우 아헌亞獻을 마쳤을 뿐이지. ”

동애의 말이었다. 보름쯤 뒤로 오는 설에 서울에서 아이들이 내려오면 그 편에 부인을 다시 서울로 올려보낼 것이라 한다. 조석을 수발하며 변을 받아내야 하는 부인의 존재가 집상중인 동애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설에 부인마저 서울로 떠난 뒤의 텅빈 고택에서 동애옹만의 조석 상식 호곡 소리가 홀로 울릴 것을 생각하니 필자의 마음이 더 서글펐다.

필자가 송석헌의 높은 뜰위 댓돌에 올라 마룻문 앞에서 인기척과 함께 통자通刺를 하자 안에서 이내 가냘픈 호곡의 응답이 시작되더니 굴건제복屈巾祭服과 수질首 · 요질腰 에 버드나무 상장喪杖을 짚은 동애옹이 신주와 궤연 筵을 갖춘 상청 문을 열어 놓고 곁방의 거적자리와 짚베개가 깔린 곳에서 호곡을 그치지 않았다. 필자로서도 참으로 오랜만에 궤연 앞에서 묵념과 재배를 하고 곁방의 상차喪次로 나와 맞절로 문상을 하게 되는 바였다. 옛적에도 70이 넘으면 질로 老라 하여 상례와 제례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 부모의 상에 애훼哀毁함을 지나치게 하여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은 불효라 이를 금했음을 상기시키며 집상에 자중자애할 것을 권하자 ‘ 나 같은 것이 무슨 효를 안다고 운위하겠느냐 ’는 것이 일언지하로 자르는 동애의 대답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7년 전 6년 동안 와석하였던 동애의 선고가 별세하였을 때는 온세상이 다 알 정도로 매스컴이 이를 보도하였다. 특히 MBC TV에서는 특집 제작팀이 와 20여일을 묵으며 촬영하여 만든 다큐멘터리를 전국 네트워크에 1시간 동안 방영하면서 천만 시청자의 심금을 울린 바 있었다.

역대로 대효가 끊인 바 없는 집안, 그 가성을 실추시킴이 없는 동애는 자녀가 모두 서울로 올라가 살아 빈집으로 덩실한 이 고택을 홀로 지탱하며 6년 시병으로 그 선고에게 성효를 다했다. 그리고 그 선고가 고종하자 고복皐復과 발상거애發喪擧哀며 호곡용통號哭踊痛에서부터 굴건제복과 점석거처 席居處를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예제에 맞게 하면서 조석으로 묘소를 오르내려 3년 동안 시묘侍墓하기를 옛사람과 같이 하였다. 다만 그 묘소가 바로 집뒷산이어서 따로 묘산하에 여막을 칠 필요가 없었음이 옛사람과 달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하도 변하여 굴건제복 등을 칫수와 제도에 맞게 지을 손이 없는지라 동애는 손수 삼베를 마름질하고 참최斬衰 · 재최齊衰 등에 맞게 바느

▲ 12월 17일 아침 봉화읍의 장례식장 마당에서 견전례遣奠禮를 행하고 있다